

완도군, 장기 체류형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한다

최대 5박 6일까지 확대...이용객 비용 30~70% 지원 테마형 콘텐츠 개발...효과 검증·생활인구 유입 기대

‘해양치유 1번지’ 완도군이 1박 2일부터 5박 6일까지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해 해양치유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16일 완도군에 따르면 4월부터 해양치유 활성화와 효과 검증,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 체류형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바다, 숲, 섬 등 완도 전역을 하나의 치유 공간으로 활용해 해양치유, 해양기후치유, 산림치유, 섬 투어, 해양 활동(전복 채취 등), 치유 식단 체험 등이 진행된다.

일정은 1박 2일부터 최대 5박 6일까지이며, 관광 동선이 아닌 신체적, 심리적 회복의 흐름에 맞춰 해양치유가 필요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특히 2박 3일 특화형 프로그램은 맨발 걷기와 캠핑 리트릿(Retreat), 가족 특화 프로그램, 번 아웃 극복, 치유 푸드 등 완도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자연환경과 해양치유를 결합한 테마형 콘텐츠로 운영한다.

별도로 스트레스와 우울, 수면 장애, 근골격계·대사 질환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치유형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군은 치유에 대한 증가 수요를 반영해 참가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비용을 30%에서 최대 7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비용 지원으로 심신 회복이 필요한 중장년층과 환자, 가족 단위 등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체류형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의 또 다른 목적은 치유 효과 검증이다.

참가자는 프로그램 참가 전후 건강 상태, 심리 지표, 생체 데이터 등을 측정하며 치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군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체류형 해양치유 프로그램 효과를 확인하고 표준화된 운영 매뉴얼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완도의 다양한 콘텐츠를 결합한 체류형 치유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상품화할 계획이다.

체류형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생활인구가 확대되고, 숙박, 음식점 등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방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4월 초 완도해양치유센터와 완도군 누리집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의 우수한 치유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완도해양치유센터 전경. 사진제공=완도군

목포, 미래 100년 항만구조 만든다

신항·북항·남항·삼진항 항만별 특화 부두 추진

목포시가 신항과 삼진항, 북항, 남항 등 기능 재배치를 통해 ‘목포항 미래 100년’ 장기 발전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6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목포항 및 배후부지 기능별 재배치 TF회의’를 열고 해양레저·물류·수산·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목포항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시 항만 관련 부서와 교수, 해양수산 전문가, 항만 관계자 등 외부 자문단이 참석해 목포항 기능 재편 방향과 부서 간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목포시는 현재 목포항의 경우 어선·여객·물류 기능이 혼재돼 항만 이용 효율이 낮고, 북항은 어선 과밀로 안전 문제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북항은 선박 수용 능력을 초과한 어선이 정박하면서 기상 악화 시 최대 8층 이상 겹치기 접안이 발생하는 등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어선과 여객 기능이 혼재돼 관광 기능 활성화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목포시는 삼진항 국가어항 개발을 계기로 북항, 신항 등 목포항 전반기능을 체계적으로 재편하는 ‘목포 큰그림 프로젝트’ 추진에 나선다.



목포시는 최근 ‘목포항 및 배후부지 기능별 재배치 TF회의’를 열고 해양레저·물류·수산·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목포항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제공=목포시

삼진항은 약 494억원을 투입해 국가어항으로 개발하고, 물양장·방파제·냉동·냉장시설 등 어업 기반시설을 구축해 2030년까지 어선과 레저선 등 총 428척을 분산 수용하는 수산 중심 항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북항은 어선 혼잡 해소 이후 소형어선 및 해경 전용부두로 특화하고, 내항은 어선 기능을 단계적으로 이전해 여객과 마린나, 친수공간 중심의 관광 거점 항만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신항은 해상풍력 산업과 항만 물류 중심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남항은 친환경 선박 연구개발 클러스터 중심으로 육성하며, 해양관광 분야 민간 투자 유치도 병행한다. 항만 배후부지 개발도 추진된다. 내항 주변은 마리나와 문화시설이 결합된 수변 관광공간으로 조성하고, 신항 배후부지는 해상풍력 산업 클러스터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목포항 기능 재배치는 단순한 항만 정비를 넘어 목포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장기 발전 전략이다”며 “체계적인 기능 재배치를 통해 항만의 안전성을 높이고 관광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복합 항만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이윤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영암, 서울농장 숙소 추가 건립 추진

초록우산과 기부채납 협약...체류형 농촌체험 공간

영암군이 체류형 농촌 체험 기반 강화를 위해 영암서울농장의 숙소를 추가 건립한다.

16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에서 초록우산 전남지역본부와 농촌체험 시설 영암서울농장 숙소시설 건립 기부채납 협약을 개최했다.

영암서울농장은 도시민에게 농촌 생활 체험 기회 제공, 지역 교류 확대 등을 위해 영암군이 운영하고 있는 체험 시설이다. 협약에 따라 초록우산은 영

암군이 제공한 땅에 예산을 투입해 농촌 체험 숙소를 건립하고, 준공 후 영암군에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한다.

새 숙소는 영암군이 운영해 영암서울농장을 찾는 도시민의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농촌 체험 참여자를 이주배경 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게도 개방·확대에 나눈다. 상생의 공간으로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이



영암서울농장 숙소시설 기부채납 협약식. 영암=한홍국 기자 hok1342@

진도, 산불 취약 의료기관 대피 훈련

실제 산불 상황서 유관기관 합동 대응체계 점검

진도군은 산불 발생 시 산불취약 의료기관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최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대피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산불이 요양병원 인근의 산림으로 번지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한 대피 절차와 기관 간 협력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진도군보건소를 포함해 진도소방서, 진도군청 산림휴양과, 안전생활지원과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산불진화, 환자 대피 등 대응 절차를 확인하고, 훈련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요양병원의 특성상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환자 이동과 대피 요령, 대피 경로 확보, 구급·응급 대응, 유관

기관 간 상황 전파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부터 환자 이송, 현장 통제까지 단계별 대응 지침(매뉴얼)을 현장에서 직접 적용해 실효성을 확인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아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제 산불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 ‘물 들어왔을 때 저 어여’

이달의 CEO



서형호 휴바스코리아 대표
30년 한 길 대표 ‘친환경 농업자재 전문기업’ 자리매김

화제의 인물



남영숙 대한민국 화백 명장
꽃을 놓지 않은 50년, 호남 화계의 부리를 지키다

남도예술인



정성우 씨네로드 대표
“우리는 목포에서 영화를 만들고 상영합니다”

2026.03 vol. 154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전라도인

구독문의: 062)370-7080 광고문의: 062)370-7070

전남의 보물섬



여수 하화도
벼랑 끝에서 ‘꽃의 노래’로 피어나다

이달의 이슈



바다·정원·축제의 힘...
전남 12곳 로컬100에 오르다

커버스토리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한 아이도 포기 않는 기본교육
광주전남교육특별시 시대 열 것”